

55번째, 농기구이야기

곡물을 고르는 연장 ‘바람개비’



(바람개비 © 농업박물관)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발행일 : 2013. 2.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1. 형태 및 사용 방법

바람개비는 탈곡한 곡식에 섞여있는 쭉정이나 검부러기 등을 바람으로 날리는 도구이다. 지역에 따라 바람개비, 팔랑개비 또는 풍로, 불무라고 불렀고, 1900년대 초기에 일본에서 들어왔다. 형태를 살펴보면, 받침대에 박힌 기둥에 지름이 1m 정도의 날개가 3~4개 달려있다. 기둥의 뒤편에 날개와 연결된 손잡이가 있어 잡고 돌리면 날개가 회전하게 된다. 곡물을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회전하면서 생기는 바람에 의해 무게가 가벼운 곡물의 쭉정이나 먼지, 검부러기는 날아가고, 알찬 곡식은 아래로 떨어져 알곡을 고를 수 있다. 한사람이 뒤편 발판에 올라가 손잡이를 돌리고, 다른 사람이 공중에서 삼태기 등에 담은 곡물을 쏟아내는 방법으로 두 사람이 손발을 맞추어 작업을 한다. (사진 1,2)



사진 1. 바람개비(©농업박물관)



사진 2. 바람개비 세부(©농업박물관)

2. 곡물을 고르는 도구들

바람개비와 같은 용도로 곡식의 쭉정이나 검부러기를 바람으로 날리는 키, 부뚜, 풍구 등이 있다. 키는 대나무 등을 납작하게 쪼개어 만든 것으로 앞은 넓고 편평하며 뒤는 좁고 오목하고 양쪽 앞에는 작은 날개가 달려있다. 키는 오목한 부분에 곡식을 담아 높이 들어서 곡물의 검부러기를 가려낸다. 크기와 무게는 보통 70cm와 800g이지만, 지역과 용도에 따라 다양하다.(사진 3)

풍구는 크고 둥근 통 안에 여러 개의 날개가 달린 바퀴가 장착되어 있는데, 연결된 손잡이를 돌리면 큰 바람이 일어난다. 이때 위의 입구에 곡물을 낙하시켜 바람을 일으키면 가벼운 쭉정이는 날아가고 선별된 곡물만 아래로 떨어진다.(사진 4)



사진 3. 키(©농업박물관)



사진 4. 풍구(©농업박물관)

이들은 곡물의 쭉정이나 검부러기를 고르는 비슷한 일을 하지만 크기와 기능면에서 차이가 난다. 바람개비와 풍구는 한 사람이 손잡이를 돌리고 또 다른 사람이 곡물을 낙하시키는 방식으로 한 시간에 10~20여 가마 정도의 작업이 가능하다. 반면에 키는 한 사람이 한 시간에 반 가마 정도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김광언, 1969,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한국농업기계학회, 2001, 『한국농기구도감』

박호석, 2004, 『한국의 재래농기구』